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4호 [부제 제23226호] 주체99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공지가 넘치게 (♩=68)

mf G E7 Am

1. 그대가 펼쳐준 하늘에 당기는 휘날리고

D D7 G

그대가 꽃피운 락원에 당복이 넘쳐나네

G E7 Am D7 G

누구나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따르는 당이여

D7 Am D7 G

그 품에 안기여 우리는 이 행복 끝없어라

(후렴) *f* C G

영광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D7 G G7

감사 감사를 드리자 향도의 우리 당에

C G

노래 노래를 드리자 불패의 우리 당에

D7 G

한 마음 우러러 영광 드리자

2. 이 땅의 주렁진 열매도 그대가 가꿔주고
이 땅의 정의와 존엄도 그대가 지키었네
언제나 인민을 이끌어 승리를 펼치는 당이여
부강과 번영을 안아온 그 손길 고마워라

(후렴)

3. 그대를 따라서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며
그대를 받들어 태양의 위업을 펼쳐가리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당이여
천만년 선군의 한길로 이 조선 이끄시라

(후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최영림 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배 이 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호 오 온
김 오 온
김 오 온
최 오 온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지 지 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1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그리고 당신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의 력사와 중국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변이었으며 지난 61년간 중국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 호구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하여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귀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조중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이 친히 마련하여주신 조중친선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면서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변명과 귀국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김 영 남
최 영 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주제99 (2010)년 9월 30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로동당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로동당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로동당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로동당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 로동당 중앙리사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백 두 산 3 대 장 군

에빠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포레스》 에스페랄다스 기술종합대학 명예교수칭호를 드리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9월 21일 에빠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포레스》 에스페랄다스 기술종합대학 서기국이 명예교수칭호를 수여해드릴것을 결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9월 21일 에빠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포레스》 에스페랄다스 기술종합대학 서기국이 명예교수칭호를 수여해드릴것을 결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9월 21일 에빠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포레스》 에스페랄다스 기술종합대학 서기국이 명예교수칭호를 수여해드릴것을 결정하였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스톡 온 트렌트지부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 21일에 결성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 21일에 결성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 21일에 결성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8월 21일에 결성되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격조있는 소식에 감격한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의와 애정을 담아 최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민족사적대장사를 맞이한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세계 싸워나갈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김일성평장에서는 9월 30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15만여명의 각계층 수도시민들은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 백전백승의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대회장으로 모이들었다.

그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세기적승리가 실현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져나오게 되어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지고있는 가운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행복과 격정으로 세 차례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등의 구호를 드리는 대형기구들이 대회장상공에 떠있었다.

붉은기들이 나뭇기고있는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십시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주상성동지, 박도훈동지, 최봉해동지,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 태종수동지, 김명해동지, 문경덕동지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대학일군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일군들, 풍물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장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가 마련되고 민족적존엄과 강성번영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하여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린 이번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결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세의 선군령장,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온 겨레의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민족의 대정사로서 조선로동당을 강화하고 그 행동적가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됩니다.

내외반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격파하시며 겨레의 통일위업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심성과 확관을 안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권위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침한 반미대결전에서 변천련승을 이룩하시어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인인류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 대경사에 즈음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족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장군님에 대한 이북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호모의 표시이며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입니다.

신군의 위력으로 력사의 반동들의 악랄한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서버리리니 자주시대의 휘황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은 온 겨레와 진보적인인류의 정의와 진리의 상징, 승리와 행복의 기치로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천리해안의 예지와 백승의 지략,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현신으로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애정, 리론, 방법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위인이십니다.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달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더욱 발전부화하시어 우리 민족과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고히 밝혀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주석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어 주체의 선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은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민중에게 필승의 보증을 안겨준 특출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영애와 자긍심에 넘쳐있는 반미대결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장군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더욱 역세게 나아가 불타는 경기에 총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시고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며 반미대결의 전진선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투를 최상의 경지에서 결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민족적존엄과 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당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김일성주석님의 당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우리는 백승의 선군정치란 만드는 길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남녘각지에 선군지호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갑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열차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내외반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우리로 더럽고 민족적공포와 탄압,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전을 최우명으로 삼으시고 불철주야의 로고와 현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었습니다.

아버지주석님의 강성대국건설념을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주체철과 주체비료로 물결을 띠어 쏟아내고 대개도간척지와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워 조선은 걸출한 현대의 선군조선의 신념과 위업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열차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내외반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우리로 더럽고 민족적공포와 탄압,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백승의 선군정치란 만드는 길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남녘각지에 선군지호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갑니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천만대적도 쳐부릴수 있는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올라선 공화국이 오늘날 경제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며 세인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력사의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9 (2010)년 9월 29일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축하 문

조선로동당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편과 제일동무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장군,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전체 총편일군들과 제일동무들은 지금 형언할수 없는 영광과 환희로 들끓고 무한한 행복감에 가슴속차오르고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주석님의 당,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강철의 당으로 펼쳐나가고 그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경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인류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정치대가로 열렬히 칭송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불세출의 위인이신 장군님을 모시고 애국애군운동을 보람차게 벌려나가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하여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감지 못하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고 주체혁명의 심장이시며 우리모두의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전체 총편일군들과 제일동무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총편과 제일동무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온 민족의 대정사입니다.

우리는 총련대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부여주시고 장군님께서 부여하신 헌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총련을 위한 헌령, 위대한 령도자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참가해 북부하는 해외애국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지겠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인 영광과 긍지높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사이에 주신 강령적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2012년에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거어 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주석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어 주체의 선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은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민중에게 필승의 보증을 안겨준 특출한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무투를 최상의 경지에서 결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민족적존엄과 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백승의 선군정치란 만드는 길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남녘각지에 선군지호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갑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열차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내외반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우리로 더럽고 민족적공포와 탄압,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시고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며 반미대결의 전진선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승의 선군정치란 만드는 길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남녘각지에 선군지호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갑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열차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내외반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우리로 더럽고 민족적공포와 탄압,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갔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 99 (2010)년 9월 29일 일본 도쿄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전하는 력사의 곳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 끝없이 달려온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9월 30일 발 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축하하는 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사당에서 작별분화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전국연구토론회가 9월 30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운 자발 앓던 그린 주조 하였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특 여기에는 궁색은 외무성 부 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상이 참가하였다.

공고한 통일단결과 든든한 군중적 기반, 강한 대중동원력을 가진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데 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 당간부양성기관, 과학, 교 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강변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건설과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정한 6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실천투쟁에서 혁명대오의 사상적지적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는 문제, 당의 군중적지반을 조성하는 문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대중경도예수를 갖춘 조직적력량들을 육성하는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혁명적당을 창건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을 열어 놓으시었다.

향인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자랑스러운 선군전통은 우리 당이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혁명전통으로 발원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기풍은 우리 당의 넋으로, 기둥이 되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차용명은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였는 위대한 혁명적당》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행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빛나게 실현하여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책임주필 람정봉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업적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전위대로 건설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어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유일적 령도받이 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투쟁성을 가진 전투적 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 의미는 또한 력사상 처음으로

그것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지

전 국 연 구 토 론 회 진 행

제국의 논문에서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있어 우리의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천만군민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키웠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당은 창건초기부터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군건설을 선자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왔으며 전군주체 사상화하기 위하여 이인위전을 통해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제국의 논문에서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있어 우리의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천만군민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키웠으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당은 창건초기부터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군건설을 선자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왔으며 전군주체 사상화하기 위하여 이인위전을 통해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든든히 준비된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혁명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당건설이 강화발전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업적은 또한 우리 당을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전진선대로 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혁명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당건설이 강화발전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업적은 또한 우리 당을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전진선대로 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강력한 정치적참모부》라는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중국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사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브라질단체가 인터넷에 기념글을 올렸다. 나이지리아주재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한 걸음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굳건히 추진하는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사상강국이다.

공화국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천하였다.

홍예지는 공화국정부가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는 것을 군사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그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단 14년 동안에 공업화의 역사적업무를 수행하고 그후 경제건설에서 자립적경제체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여 세계를 깜짝 놀래우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복리가 계통적으로 증진되는 나라, 세금을 없애고,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나라, 예술의 전성기의 대상으로 되었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체의 탄생 100돐을 맞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것이 공화국정부의 목표이고 의지이다.

공화국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목표는 반드시 달성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인디안신문 《투어리움 이리》 9월 24일부는 《조선

의 자력경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강국의 목표를 점명하기 위하여 전진하고있다. 외부적환경이 극히 어려운 때에 조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제강국건설목표를 점명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력경제이다.

자력경제는 조선인민의 고유한 혁명방식의 하나이다. 조선은 지금껏 자력경제로써 자기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시종일관 튼튼한 자립적경제체계를 건설해나갔기에 조선은 1990년대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와 그를 기회로 한 적대세력들의 집중적인 반사회주의공세, 몇해째 계속된 외국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역경을 이겨낼수 있었다.

조선의 자력경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능히 이겨낼수 있게 하고 나라의 흥성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보검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외부의 압력이 우습해질수록 더욱 분발하며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력경제,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는 인민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체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기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하여 전제 인민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출발시켜나가는 속에 자력경제의 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높게 발양되고있다. 《크리쉬나 에버라》 9월 22일부와 《인디아 유럽 뉴스 앤드 인포메이션 뷰로》 9월 23일부 두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우리 공화국의 불멸의 위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존체제의 우월성을 격찬하였다.

오늘은 중국인민공화국 창건 61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형제적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중국인민은 그때로부터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읍니다.》

광활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인류의 문명발전에 기여한 중국에도 한때 수난의 려사가 있었다. 19세기 40년대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세기 가까이 중국은 외세의 의해 침략과 예속을 당하고 많은것을 빼앗아 갔고 잊혔다.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자와 불합리한 국내반동세력들을 반대하는 국내혁명전쟁들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이처럼 불행하고 잔혹했던 려사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마침내 끝났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무장투쟁으로 이룩한 혁명의 전위적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려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의 기치를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사회적 진보와 민족발전의 세 려사가

펼쳐졌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주인, 새 생활의 창조자가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창건후 중국인민은 수십년동안 자기 식으로 자기의 리상에 맞게 나라의 부강번영을 설계하였으며 자기의 성실한 탐과 노력을 바쳐 사회주의의 새 중국을 일떠세웠다. 부강발전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은 중국인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다.

중국인민공화국이 오랜 기간 중국혁명과 중국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은 중국공산당의 올바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자기의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혁명발전의 매시, 매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모든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중국이 세기적 력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날라를 사회주의문명을 이룩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따라서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오는 중국인민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었다는 노래를 부르며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중국정부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국제평화가 복잡다단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에로와 난관들이 제기되고있지만 중국정부와 인민은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

쳐 만년을 극복하며 진보와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올해 여름 중국의 갑성성, 호남성, 호북성, 운남성, 사천성, 룡녕성, 길림성 등 여러 지역들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 등으로 하여 적지 않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 중국의 당과 정부, 지방정권기관들이 떨쳐나서 재해지역에 많은 구제물자들을 보내주고 리제민들의 생활을 안락시키기 위한 사업 등을 힘있게 벌였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국력은 뚜렷이 시위되고있다.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대외적전위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새중국 창조의 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중국관념도 변화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뜨겁게 여기고있으며 호모동지들을 칭송기도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과학발전에서 기초한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다.

조중 두 나라는 가까운 림방이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같은 친선의 뉴데리 편지되어 있다. 오랜 려사적부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블레의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새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령도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보다 공고발전시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에 들어와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조중친선의 화친을 활짝 꽃피우신 불멸의 업적을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아로새겨져 같이 빛날것이다. 오늘 조중친선이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이요 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유명한 고건소설을 각색한 가족 《홍루몽》이 새롭게 창조되어 중국에서 공인되며 뒤이어 지금 중국의 유명한 민간전설을 각색한 가족 《황산백과 흑위대》의 창조사업이 진행되고있는것은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확고불동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은 두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익하다. 그것은 국제관계발전의 흐름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것이다.

77개 집단 외무상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

9월 28일 유엔총회 제 64차회의간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77개집단 외무상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인 박건원 외무성 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국제경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공정한 경제질서수립을 적극 추동할데 대한 77개집단의 신념이 율했다는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하면서 민족경제의 발전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선진국들의 정당한 노력을 심각한 도전들에 부닥치고있으며 세계적위기에 대처하여 77개집단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언급하고 세계적 인 금융경제 및 식량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발전도상나라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공정한 국제경제관계수립은 여전히 77개집단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된다. 불공정한 현 국제경제관계의 구조조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세계적 인 금융경제위기를 해소할수 없다. 77개집단의 발기로 유엔총회 제 64차회의에서 채택된 《세로로 국제경제질서지향》에 관한 결의에 따라 유엔은 그 리행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세계적 인 도전들에 대처하여 77개집단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언급하고 세계적 인 금융경제 및 식량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발전도상나라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를 비롯한 전략적인 자원과 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려장들의 세력권확장의 연장이며 그 희생물은 바로 발전도상나라들이다. 나라들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77개집단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완비된 사업체계의 구조를 갖춘 77개 집단사기국을 창설할데 대한 아바나 남수치의결정같이 조속히 리행되어야 할것이다. 77개집단이 또한 남남협조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나라들이 함께 노력할데 대하여 협력을 높여 북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과적으로 구축할수 있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나라들의 경제력과 투자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존적역면위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있다. 77개집단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을 확고한 지점으로 틀어쥐고 이미 채택된 남남협조행동강령과 대상계획들을 계속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나라들의 경제개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77개집단의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77개집단의 승인과 목적과 사명에 충실할것이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타시 옴라 24일 밤바 9월 2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환경보호사업을 위한것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때부터 중국에서는 사회적 진보와 민족발전의 세 려사가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1일 포스마 리가와 말더브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당한 처사 단죄

중국의 교부 대변인이 9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일본외무성의 한 관리가 중국언론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본은 국내법에 따라

그 배를 처리하였으며 사회, 보살핌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는 이미 성명을 통해 엄격하고 올바른 림장을 밝혔다

고 말했다. 일본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중국공민의 권리를 엄중히 침해한것으로서 중국은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타시 옴라 24일 밤바 9월 2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환경보호사업을 위한것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때부터 중국에서는 사회적 진보와 민족발전의 세 려사가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9월 23일 석탄중립문제로 호상 협조할데 대한 문전에 조인하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타시 옴라 24일 밤바 9월 2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환경보호사업을 위한것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이 때부터 중국에서는 사회적 진보와 민족발전의 세 려사가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외교정책을 배격

레바논대통령 미셸 홀레이 단이 9월 23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집트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이집트외교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나토군의 공습만행에 항의

파키스탄의 무성 대변인이 9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두차례의 공습을 감행하여 파키스탄인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나토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무성 대변인이 9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두차례의 공습을 감행하여 파키스탄인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나토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무성 대변인이 9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두차례의 공습을 감행하여 파키스탄인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나토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무성 대변인이 9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나토군의 공습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두차례의 공습을 감행하여 파키스탄인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나토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식민지총독정치의 죄악

세월의 흐름은 사람들의 기억을 삭막하게 해준다곤 한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똑똑해져서 잊지 못할 일부수상의 《당우리 나라를 비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파괴공작과 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친 일제의 죄악이다.》

《지난 100년간은 일본에 있어서 죄악의 려사이며 그 청산을 거부하는 려사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일본에 대한 괴악한 려사이며 일본에 대한 분노의 려사이다.》

이것은 최근 브라질의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도적방법으로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글에 실린 내용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불미스러운 조일관계의 100여년 려사를 뒤새겨보노라면 일제에 의한 불법비법의 《한일합병조약》날조와 《조선총독정치》의 죄악이 뇌리를 처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한 무리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만일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비비적으로 병탄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 일본수상이 결발법의 《사과》를 표명하는 《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의 《담화》를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사과를 보면 필요할 때에만 하는 허례허식처럼 느껴진다.》 《사과는 한갖 걸치며 불박한 것이다.》 라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도이원판들의 한 고수는 죄악의 과거자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서 일본이 취하는 반법적의 태도는 도이원판과도 너무도 판이하다고 비

평하였다. 어느 한 사람은 《한일합병조약》이 비법적으로 체결하였을것을 인정하는대까지도 미치지 못한 일본수상의 《당우리 나라를 비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파괴공작과 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친 일제의 죄악이다.》

말로는 숙여도 눈길은 숙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그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 반성하고 배상하는것은 법칙, 도덕적의무, 려사적책임으로 된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과거정산을 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원광과 공감을 받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엄청난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세상에 일본처럼 랑성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나라는 없다.

일본은 죄악은 과거죄사를 외곡하며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지만 그것은 공명합당이다. 일본의 과거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질수 없다.

오늘로 말하면 일제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총독부》를 식민지파괴공작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최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사람들은 《조선총독부》라는 말을 들을 때면 누구나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테라우찌가 떠벌린 망언을 되새겨보곤 한다.

조선사람들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일제시 《조선총독》들은 우리 인민을 가장 포악하게 억압한 파쇼괴형리들이었고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향시키기 위하여 미적

판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1일 포스마 리가와 말더브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 그공군기지에서 우주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위성 등 우주물체들을 포착하고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